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 적극 나서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호가 필요한 중증노인들을 앞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며 내놓은 국가시책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불교계는 아직 이 제도에 시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양보호사 양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요 사회 사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반적 노인케어를 담당하면서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자격자를 말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양보호사양성교육원에서 신입 기준으로 240시간(이론 80·실기 80·실습 8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1급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공인자격임에도 학력·나이 제한이 없고 무시험이라 현재 40~50대 중반 여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가족부 통계(2008년 3월 현재)에 따르면 전국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은 1070곳에 이르고 있다(서울은 121곳).

교육은 사회복지학과 간병 등의 이론, 인체모형 등을 통한 실기, 요양원·생활시설 실습으로 각각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요양보호수급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 불교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불교계에서는 서울 수효사와 여수 석천사에서 종단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수효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원장 무구)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효림교육원)은 4월 18일자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이수자 80명을 배출했다. 이들에 대한 자격증은 4월 24일 효림교육원에서 교부됐다. 올 2월 4일 개원한 효림교육원은 불교계 최초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와 신입, 그리고 직장인과 주부 등으로 나눠 5개 분반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효림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가정파견봉사센터 등이 추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를 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두달 앞으로...



서울 수효사는 4월 24일 효림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배부했다(사진 위). 여수 석천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해 불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효림원·보문복지회서 자격증 첫 발급 타종교 비해 교육시설 부족...관심 필요

옹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효림원은 내년 7월 준공될 서대문요양원을 수탁해 교육과 실습, 취직이 모두 연계될 수 있게 됐다.

효림교육원을 이끌고 있는 무구 스님은 “어떤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뛰어나고 하는데 국가자격이라 취득하는 성취감이 있고 봉사나 사회복지의 기본 생각 등을 배울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면서 “이를 통해 각 가정에 있는 노인을 비롯한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자기자신의 케어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여수 석천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보문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보문교육원) 역시 현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수료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40명의 교육생들이 전라남도청으로부터 자격증이 송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월 12일 문을 연 보문교육원은 현재 신규의 경우 49명이 종일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져 교육받고 있다.

보문복지회 김현옥 과장은 “앞으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사회 주부들에게서 문의가 많다”며 “보문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은 국가 자격증 소지자 배출만이 아닌 세상을 밝

힐 수 있는 무형의 자원의 마음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주고자 하는 종교 본연의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찰에서는 앞으로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해 사찰 또는 불교계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교육실 문제로 타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재단을 비롯한 몇 개의 불교계 사찰·기관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설립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은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불자들의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불교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해 40대 이상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불자들이 아직 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찰과 종단기관의 꾸준한 홍보도 필요하다. 한 스님은 “현재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난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불교계에서 역량을 모아 제대로 된 양성기관을 세워 집중하는 편이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제도, 이런 점은...

요양보호사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둬야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낭패를 보지 않는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이 우수측순으로 생기기 보다는 부실 교육기관의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교육을 받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주는 기관도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교육기관을 철저히 점검해 지정해야 할 부분이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해도 실습이 가능한 요양원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 귀띔하며 “불교계에서 요양보호사 못지 않게 요양원 설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아직도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인식돼 있다. 하지만 그것만 복지가 아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진각종 실상심인당에서 활발한 복지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주(3·사진)씨 역시 처음에는 보시금을 내는 것이 복지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보다 폭넓게 '복지'를 바라보고 있다.

“가슴으로 복지행 펼칠 것”

◎진각종 실상심인당 문화주씨

“저도 이제야 머리로 하는 복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겨우 따뜻한 가슴으로 복지행을 펼치는 불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벌써 15년째 서울 구로동 진각종 실상심인당에서 여러 가지 지역 복지를 펼쳐 온 문화주씨. 그러나 자신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요즘 문화주는 ‘수업’을 진행하느라 바쁘다. 구로지역 거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서지도도 하고 있다. 화요일에는 실상심인당에서, 금요일에는 심인당 인근의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에서 각각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 대상은 저소득층, 일반인 등을 딱히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국사, 세계사, 문학사로 범주를 나눠 여기에 대한 책을 선정해 가르친다. 문화주는 이 자리에서 교육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얼마를 반응이 좋아 계속해서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이 지역이 소외된 자는 아니네. 그래서 인지 이런 독서 교육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도 책을 읽게 됩니다. 주부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배워서 독서지도도 할 수 있거든요.”

문화주는 어느 자원봉사자들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그는 몸을 쓰는 일 보다는 주로 머리를 써서 봉사해왔다. 물론 실천력도 뒷받침 됐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온 것이다.

3년 전부터 문화주는 실상심인당 청소년들과 강릉지역 공부방 아이들을 연계해 방학 캠프를 열고 있다. 아이들끼리만 교류하면 어렵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같이 영화도 보고 전사회도 보도록 만들면 어느새 친해진다 고 한다.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생각하



다 보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는 게 많지요. 강릉 공부방 아이들이 실상심인당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성취감이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성공만 한 것은 아니다. 몇 년 전에는 실상심인당에 ‘나눔가게’를 하나 열어 지역사회에서 재활

용품을 순환시키고 그 수익금은 다시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실시

했는데 ‘자원재활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행 실천을 멈추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시행착오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화주는 도서관 수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실상심인당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천연비누를 좀 더 값싸게 공급하면서 주부들에게는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러가지 복지활동을 통해 저 스스로의 깨침이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행으로 바쁘면 수행이나 기도에 대한 마음도 함께 깊어 집니다. 저는 이런 것이 고맙고 행복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교지도자 대법회

일시 : 불기2552(2008)년 5월 6일(화)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컨벤션센터 2층)

- 1부_ 오후 5시 식전행사 (축하공연)
- 2부_ 오후 6시 분행사 (대법회)
- 3부_ 오후 7시 식후행사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사절단)공연

주최 : 인천불교총연합회 봉축위원회 032)330-5343
후원 : 인천광역시, 불교TV, 불교방송,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우리불교, 생활속의 불교, 사)팔관재보존회, 해동불교범용대학
협찬 : 라마다송도호텔, (주)영회기업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사절단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범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남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 ▶ 고풍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풍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연등(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